

木山 李基敬 『東儒經說』의 書誌的 考察

이경훈*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목산의 『동유경설』 | 참고문헌 |
| 3. 목산 『동유경설』의 서지적
특징 및 그 의의 | <Abstract>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후기 노론 낙론 계열의 인물이었던 목산 이기경의 『동유경설』을 서지학적 측면으로 검토하여 『동유경설』의 형식적 특징과 주요 내용을 살피고, 이를 통해 목산 개인의 경학적 사유의 근원을 살펴봄과 동시에, 조선 학자들의 유가 경전에 대한 이해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선, 목산의 『동유경설』 집필에 관한 사실은 『목산연보』에 실려 있다. 『목산연보』에는 “영조25년(1749) 목산 37세에 『동유경설』을 모아 편집하였으나 완성치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유경설』은 미완의 저서로 인쇄본과 같은 체계적인 간기사항을 갖추지는 못했다. 다만, 제1책인 『대학』의 첫 페이지에 自序적 성격의 附箋紙가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는 목산이 『동유경설』을 편집하면서 주로 참고한 자료는 『사계변의』와 『우암문답』이며, 이 두 종의 자료 외에도 ‘조선의 유학자들이 사적으로 토론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집들에서 유가 경전에 관련된 문답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고자 하였음’을 기록해 두었다.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중국아시아연구소 연구원, E-mail: china@jbnu.ac.kr

목산은 유가 경전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정에서 발생했던 여타 조선 유학자들의 견해를 취합하여 놓음으로써 경전 해석적 논변의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경학적 사유를 확립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학문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당파나 학맥을 초월하려는 포괄적 수용태도를 견지하는 듯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동유경설』이 후학들에게 끼칠 암묵적 영향성을 인지하고, 『동유경설』을 통해 학맥을 공고히 유지하며 후학들의 경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동유경설』은 개인 차원의 경학 연구를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후학들에게 경학 연구의 과정과 방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수집본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목산의 『동유경설』을 검토해 본 결과, 목산이 傾倒해 있던 대표적 東儒에는 晦齋, 退溪, 栗谷, 沙溪, 尤庵, 市南, 滄溪, 三淵, 農巖, 芝峯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학』과 『중용』연구에 비중을 두어 다량의 자료를 취합하였던 것에 비해, 『논어』와 『시』에 관한 경설 자료 취합에서는 취합 인물과 관련 문집의 종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완성도가 그리 높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유경설』의 집필이 미완으로 남았기에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역으로 목산이 경전 해석에 있어서 『대학』과 『중용』의 가치를 우선시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木山 李基敬, 『東儒經說』, 『大學』, 『論語』, 『中庸』, 『詩』, 『沙溪辨疑』, 『尤菴問答』

1. 머리말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완의 필사본으로 남겨진 『東儒經說』상에는 木山 李基敬¹⁾이 본서를 편집하고 저술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刊記²⁾ 사항과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동유경설』이 목산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사료적 근거를 찾아 『동유경설』이 목산의 저술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근거로 『동유경설』이 목산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뒷받침해주고자 한다. 첫째는, 목산 이기경의 연보에 기록된 내용이

1) 이기경(李基敬:1713~1787) 본관은 全義이며, 자는 伯心이고, 전주 오목대 아래에 산다 하여 雅號를 木山이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후 ‘이기경’을 ‘목산’으로 통일하여 칭하고자 한다.

2) 간기란 간행지, 간행자, 간행연월 등 도서 간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다. 『木山先生年譜』³⁾에 따르면 “己巳. 先生三十七歲. 蒐輯『東儒經說』. 讀書之暇, 抄出東賢講學文字, 名之曰, 『東儒經說』, 而未及成書.”라는 기사가 있다. 둘째는, 楊應秀의 『白水先生文集』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應秀嘗得李大諫伯心所輯錄『東儒經說』而讀之. 至大學補亡章. 見李晦齋補遺序及李芝峯云云之說. 心竊怪歎. 欲以愚見有所節疑而未及矣.” 상기의 내용 중에 언급된 ‘이대간 백심’은 바로 목산 이기경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두 내용을 근거로 하여 목산의 후손가에서 발견된 『동유경설』을 목산이 제작한 것으로 확인하며, 이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목산에 대한 연구는 1990년에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에서 목산의 문집인 『木山藁』가 영인본으로 출간된 이후부터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 14회 전주학술대회가 “목산 이기경의 삶과 학문”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어 이동희의 “목산 이기경의 가계와 생애”, 어강석 “목산의 시에 나타난 소통의 시 세계”, 이천승의 “목산의 성리설과 사상사적 위치”, 이희권의 “목산 이기경의 정치사상연구”, 이영춘의 “목산 이기경의 연행록『음빙행정력』” 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이동희·어강석·이천승·이희권의 논문은 『전주학연구』 제6집(2012년)에 게재되며 여기에 『목산선생 연보』도 함께 추가되었다. 목산에 관한 저서로는 전북대학교 20세기 민중생활사 연구소에서 발간한 김명엽의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목산 이기경의 삶』(2012년)과 교육과학사에서 발간한 이영춘 외 6인의 『1756년의 북경이야기-이기경의 『음빙행정력』역주』(2016년)가 있다. 목산에 관한 연구논문은 상기의 자료 이외에도 최영진의 『목산의 인물성동이론에 관한 고찰』(1990년), 이형성의 『목산 이기경의 삶과 사상에 대한 일고』(2011년)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영춘 외 6인에 의해 『음빙행정력』의 번역본이 출간된 이후, 목산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연행록 관련 한·중 관계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음빙행정력』에 기록된 다수의 중국 도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의 사상과 문학이 조선에 전해지고 수용되는 면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두드러진다. 줄고인 『『飲水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 고찰-木山 李基敬의 견해를 중심으로-』, 『呂留良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시선 一面考 - 木山 李基敬의 『飲水行程』

3) 전주사·전주역사박물관, 2012, 『전주학연구』 제6집 참조.

4) 楊應秀, 『白水先生文集』,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양응수(1700-1767)는 이재의 문인으로, 문집으로는 『白水先生文集』이 있다. 상기의 내용은 『白水先生文集』 卷7, 『辨』, 『補亡章諸儒說辨』에 들어 있다. 본 내용은 전북학 학술연구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서 본고의 토론을 맡아주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김소희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曆』을 중심으로, 『『飮氷行程曆』에서 언급된 중국 도서의 現傳本 고찰—木山 李基敬 藏書印本 『三魏集』를 중심으로, 『木山 李基敬 藏書印本 中國本 圖書價值 小考 - 『三才圖會』와 『牧齋集』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리학자로서 연구되었던 목산의 기존 연구 성과를 기초로,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경학을 연구한 경학자로서의 면모까지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또한 신발견된 『동유경설』을 서지학적 측면에서 初探하여 『동유경설』의 형식적 특징과 주요 내용을 통해 목산 개인의 경학적 사유의 근원을 살펴봄과 동시에, 조선 학자들의 유가 경전에 대한 이해를 검토하는 새로운 자료로서 자리매김 시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목산의 경학자다운 형상을 재확립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선 유학자들의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가 목산의 『동유경설』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며, 목산은 자신만의 견해를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자 했는지 고찰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목산의 『동유경설』

목산은 전주 출신으로 英祖대에 淸要職을 두루 거쳤으며 陶菴 李緯⁵⁾의 문인이었다. 經學과 禮學 및 理學 등에 두루 조예가 깊었으며 그 밖에 諸子百家와 道學 및 佛學 등에도 대단히 박학하였고 또한 詩文과 書藝에도 능하였다. 특히 그는 이학에 밝아서 『辨韓南塘同異考中語』라는 논문을 통하여 당대의 학계에서 일대 논쟁점이었던 人物性同異論을 구명함으로서 이를 둘러싼 湖洛 논쟁에 사실상 매듭을 지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1739년(영조15)에 정시문과에 장원급제하고 1746년(영조22)에는 문과 중시에 급제하였으며, 司憲府 獻

5) 김명엽, 2012,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목산이기경의 삶』,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25쪽. “陶菴 李緯(1680~1746)의 본관은 우봉이고, 자는 熙卿이며, 호는 도암·寒泉이고 시호는 文正이다. 아버지는 진사 晩昌이고, 어머니는 여흥부원군 閔維重의 따님으로 숙종비 인현왕후 민씨와 자매간이었다. 도암은 중부 晩成에게 학문을 배웠고, 후일 金昌協의 문인이 되었다. 숙종 28년 알성문과에 1707년에는 문과 중시에 급제하였다. 1708년부터 여러 벼슬을 섭렵하였으며,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 중심의 정국이 성립되자 門外黜送되었다. 이후 용인의 천곡에 거주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정치적으로는 영조의 탕평책을 부정한 노론 가운데 峻論의 대표적 인물로 대명의리론과 신임의리론을 내세우며 중앙 정계와 학계를 배후에서 움직였다. 영조의 탕평정치를 강력히 반대하였기 때문에 영조가 산림 반탕평론의 선봉으로 지목하여 비난했다. 그의 탕평론은 제자인 목산에게 이어졌고, 이로 인해 목산은 유배의 길을 걷기도 한다.”

納, 世子 侍講院 輔德, 承旨, 大司諫, 漢城府右尹, 義州尹, 黃海道觀察使 등을 역임하였고, 1755년에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왔다.⁶⁾

본고가 목산의 『동유경설』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필자의 관심이 목산의 연행록에서 출발하였던 원인이 작용하였다. 목산의 연행록을 번역한 이영춘(2014)⁷⁾의 선행연구에서 “그는 또 『동유경설』을 지었으나 유실하였고, 『類抄二程遺書』와 『考證朱書要類』를 편찬하기도 하였는데, 전자는 二程全書를 주 제별로 분류하여 발췌한 것이며, 후자는 浦渚 趙翼(1579~1655)의 『朱書要類』를 교정한 것이었다.⁸⁾ 그러나 이 두 책 역시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서 출발된 목산의 『동유경설』에 대한 학계의 아쉬움을 목도한 뒤, 목산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던 『동유경설』을 확인하고 목산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계에 목산의 『동유경설』을 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목산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동유경설』은 미완성본으로 『大學』(一), 『論語』(二), 『中庸』(四), 『詩』(六)의 제목으로 총4권이 목산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다. 『동유경설』은 미완의 필사본으로, 跋·序·目次 및 저자 등의 관한 체계는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발서 등의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다보니 저자의 저술 연유·과정·목적 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본고는 『목산선생연보』의 기록과 『동유경설·대학』 표지의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첨부자료에 근거하여 목산이 『동유경설』을 저술하게 된 연유와 자료 수집 방법 및 주된 참고문헌에 대해 초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아래에 『동유경설·대학』 표지 내지면에 부착되어 있는 첨지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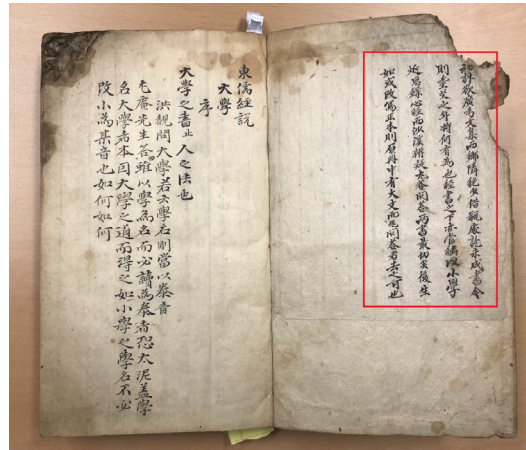
6) 이기경, 1990, 『木山藁』영인본의 발간사 및 해제부분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7) 이영춘, 2014, 『목산 이기경의 연행록 『음빙행정력』』, 『한중인문학연구』 44집, 참조.

8) 『목산선생연보』신축(1781, 69세) 월일미상. 辛丑, 先生六十九歲, 類抄二程遺書, 有事實略, 曰, 近復借現朱子書. 其中有答王欽之云, 承諭編次, 程書以類相從, 此亦用功之一端, 若求之於此, 而驗之於日用思慮作爲之間, 玩索操存無所偏廢, 則窮理居敬之功, 交相爲助, 而兩造其極矣. 今讀此書, 始知古人已有爲之者矣. 不佞來此, 無所用心, 雖始類抄, 而初未敢爲用功, 體驗之地, 恐不免於玩物喪志, 念朱子所以勸皮者, 不覺瞿然, 自失然. 如果卒獲完本, 錄取無遺以成四五大編, 則庶乎其有所補益矣. 而嶺海之歲月駸駸, 過了不知終遂此志否.

攷訂朱書要類, 有少識略曰及茲北遷書篋無携從人借瓶乃所謂朱書要類十二編始知甫渚趙公先獲余心亟取以讀之其抄節之簡當條列之先後用意深切無容更議第名目既別而杈入或混竊想此編專用力於整頓大綱未及致詳細節而然歟夫退翁所掇取者固已約矣而浦渚又從以抄之分之是其意豈出於深玩而力行非如俗學欲速好徑入耳出口之資也又況逼逼素所留心者故輒忘僭易畧加釐正蓋非敢姑欲求異乎前人耳橫渠曰其不善者共改之正所望於後學使浦渚復起亦必莞爾而笑也

사진자료 1. 『동유경설·대학』 내 籤紙⁹⁾



『동유경설·대학』의 겉표지 내부에 첨부된 상기의 문장은 목산의 自序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인다. 『동유경설·대학』의 겉표지 내부에 첨부된 상기의 문장이외에는 다른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문장과 형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동유경설·대학』이 순서로서 1번임을 재확인하는 자료이다. 상기의 첨지에서 말하는 『사계변의』는 사계 김장생의 『經書辨疑』¹⁰⁾를 의미하며, 『우암문답』은 우암 송시열의 『經疑問答』¹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9) 『동유경설·대학』 원문 : “私討欲廣考文集, 而鄉隣絶少借觀處, 訖未成書. 今則耄艾之年, 將何有爲也. 經書之下, 亦當繼以小學. 近思錄·心經, 而沙溪辨疑·尤菴問答, 兩書最切矣. 後生如或改寫正, 本則原冊中有大文, 而問答者去之可也.”
번역문 : “개인적으로 널리 문집들을 상고하고자 했으나 주변 고을에는 자료를 빌려올 곳이 매우 적었다. 그래서 책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제 늙어 오십이 되어 가는데 장차 무엇을 할 수 있으려나. 경서 다음으로는 마땅히 소학·근사록·심경으로써 순서를 잇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계변의’와 ‘우암문답’ 두 종의 책이 가장 절실한 책이다. 후생들이 만약 고쳐서 바르게 정서하고자 한다면, 근본은 이 책에 큰 글씨로 쓴 부분에 두고, 묻고 답한 부분은 산거해도 무방할 것이다.”
- 10) 목산이 언급한 『사계변의』는 오늘날 沙溪 金長生의 『사계전서』중 『경서변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서변의』는 『사계전서』제11권, 제12권, 제13권, 제14권, 제15권, 제16권에 각각 『경서변의/소학·대학』, 『경서변의/논어·맹자』, 『경서변의/중용』, 『경서변의/서전』, 『경서변의/주역』, 『경서변의/예기』로 분류되어 있다. (한국고전종합DB참조.) 본고에서는 편의상 목산이 명명한 『사계변의』라는 명칭을 『경서변의』와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목산이 언급한 『사계변의』와 오늘날의 『경서변의』를 구분하려는 목적이기도 하다.
- 11) 목산이 언급한 『우암문답』은 尤菴 宋時烈의 『經疑問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전번역DB의 『명재유고』를 참고하면, 1776년(정조 즉위년) 5월에 명재는 부친 윤선거와 함께 관작을 추탈당하고 문집 槐 판과 사액(賜額) 철폐의 명을 받았으며,

『동유경설·대학』의 겉표지 내부에 첨부된 문장의 내용을 통해 목산 『동유경설』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뒷글에 따르면 『동유경설』은 첫째로 문집을 통해 광범위하게 경설을 고찰하고자 했다. 둘째로 경설을 공부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책으로 『사계변의』와 『우암문답』을 들었다. 셋째로 경서를 공부하는 순서로 사서삼경을 공부한 뒤로 『소학』·『근사록』·『심경』 순으로 진행해야 함을 언급하고 『사계변의』와 『우암문답』 중 주요 내용을 기본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넷째로 원문을 위주로 공부하여야 하며 문답의 내용은 참고하는 것으로 삼아도 됨을 언급하였다. 또한 필자의 소주 즉 작은 글씨 또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謙言을 첨부한 듯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목산의 『동유경설』에 대한 1차적 연구로서의 목산 『동유경설』에 관한 개괄적 분석 및 계통정리를 진행하며 목산이 『동유경설』을 편집한 과정과 기획 의도를 파악하고 목산 『동유경설』의 특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동유경설』의 서지사항 정리

목산 『동유경설』의 기본 서지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료유형: 미간행 필사본
- 서명/저자사항: 東儒經說/없음
- 형태사항: 『大學』 1책, 『論語』 1책, 『中庸』 1책, 『詩』 1책 총4책/半葉
25.6×16cm, 無界, 10行 20~22字 註雙行
- 일반주기: 字體가 여러 가지인결로 보아서 목산 이외의 필사자와 공동 작업하였음
- 내용주기: 『大學』(一), 『論語』(二), 『中庸』(四), 『詩』(六)

1782년에 도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이 와중에 1778년 봄 족중손(族曾孫) 윤광소(尹光紹)는 유고를 25책으로 중편(重編)하여 간행을 도모하였다. 중편 범례에서 밝힌 원칙은 초간 때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얻은 시문을 새로 넣어 편차하고 서찰들은 긴요한 부분만을 추리고, 『경의문답(經疑問答)』을 따로 외집(外集)으로 만들고 송시열과 관련된 서찰 및 잡저 등을 합하여 4편으로 하며, 원집 가운데 나양좌 등과 송시열의 일을 논한 편지들은 모두 별집으로 옮기고, 별집 가운데 박세채의 강방운(江邦韻)에 관련된 여러 편지는 외집으로 옮기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편차된 유고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곧 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786년 윤광소가 작고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1800년대 초반에 활자(10행 20자)로 원집 46권과 별집 4권의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목산이 명명한 『우암문답』이라는 명칭을 『경의문답』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목산이 언급한 『우암문답』과 오늘날의 『경의문답』을 구분하려는 목적이기도 하다.

사진자료 2. 목산의 『동유경설』 4책



『동유경설·대학』 『동유경설·논어』 『동유경설·중용』 『동유경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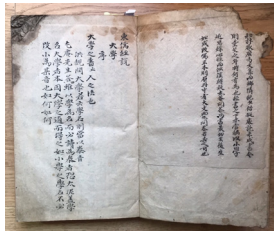
목산 『동유경설』의 대략적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특징적인 부분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4책의 형식¹²⁾을 살펴보았다. 지면은 종이를 반으로 접은 無界의 형태를 지닌다. 그리고 10行은 고정되어 있으며 자수는 기본적으로 20자를 유지하나 많게는 22字를 기입한 열도 있다. 주는 쌍행으로 기입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25.6cm×가로16cm로 4권 모두 동일하다. 외부적 형태는 오침안정법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표지에는 능화문이 있다. 본문에 첨부된 주는 일반적으로 취합자료상에 이미 달려진 주를 그대로 초록한 것으로 보이며, 필자의 주는 籤紙를 첨부하거나, 頭註 방식으로 직접 필사하거나, 書眉에 첨지를 첨부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동유경설』의 필사체를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인물의 자료나 동일한 서적류를 필사한 필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동유경설』 제작을 위해 자료를 취합함에 있어 필사자를 인물별로 또는 문집별로 배분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즉, 다양한 자료의 취합 작업을 나누어 진행한 뒤 최종제작자인 목산의 검토와 필자주를 달아 정리해 나간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유경설·논어』를 살펴보면 동일한 인물이나 동일한 서적의 내용을 취합하여 기록한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필체로 진행된 것도 있었다. 『동유경설·시』는 취합된 인물의 설도 종류가 적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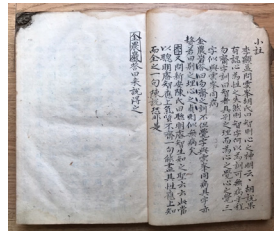
12) 이후 언급되는 수량적 수치는 완벽한 숫자는 아니라 1차적 고찰을 위해 편의상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치를 언급하는 수량사의 사용이 다소 혼용된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건, 면, 쪽’ 등이 사용되는 데, 건은 검토대상 하나 하나가 분명히 분류되는 것을 섰으며, 면은 도서의 양쪽을 한꺼번에 봤을 때 섰한 양사이고, 쪽은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각각 나누어 섰했을 때를 쪽으로 분류하였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보다 더 체계적인 용어의 사용에 힘쓰도록 하겠다.

만 아니라 필사자의 필체도 대체로 2인으로 축약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동유경설·시』가 취합된 자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작업적 완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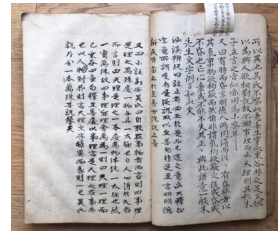
사진자료 3. 『동유경설』 필사체 사례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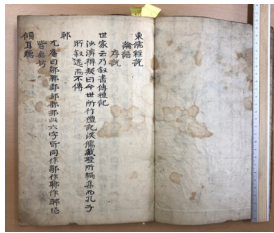
『동유경설·대학』 첫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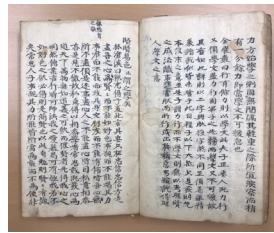
『동유경설·대학』 중,
金農巖節記 수록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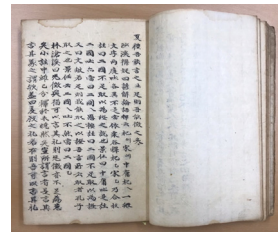
『동유경설·대학』 중, 沙溪辨疑
수록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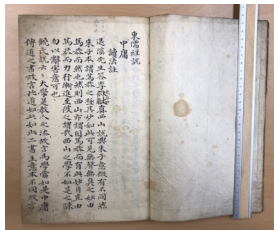
『동유경설·논어』 첫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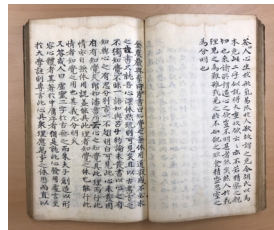
『동유경설·논어』 중
林滄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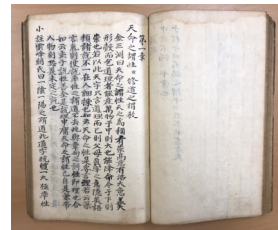
『동유경설·논어』 중
沙溪辨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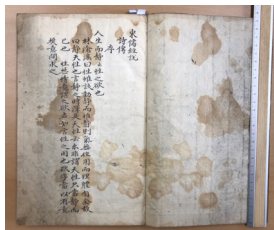
『동유경설·중용』 첫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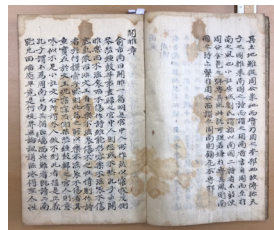
『동유경설·중용』 중
金農巖 수록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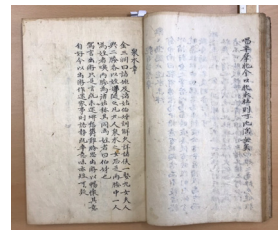
『동유경설·중용』 중
金三淵 수록부분



『동유경설·시』 첫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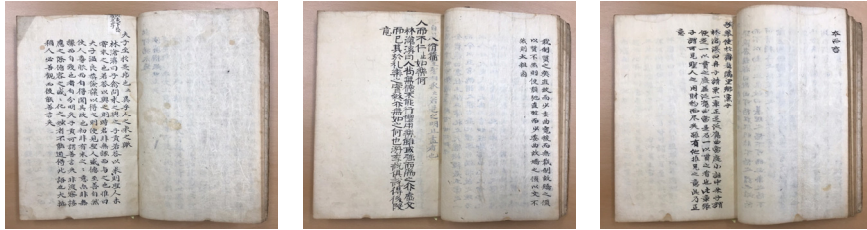


『동유경설·시』 중
俞市南



『동유경설·시』 중
金三淵

사진자료 4. 『동유경설·논어』 중, ‘임창계왈’ 다른 필체 사례



사진자료 5. 『동유경설·논어』 중, ‘김농암왈’ 다른 필체 사례



특히 농암 김창협(金昌協)의 설을 기록한 것에서 ‘김농암’의 ‘암’자를 ‘巖’과 ‘岩’으로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 인물의 경설을 서로 다른 필사자가 작업하였을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① 『동유경설·대학』의 형식상 특징

- ▶첨지 첨부 주 : 20건. 첨지 소주가 대부분 목산의 주라고 생각했는데 『사계변의』부분을 추가한다거나, 율곡의 설을 추가하기 위해 첨지를 첨부한 것들도 있다. 향후 필자주와 취합자료 원문 첨주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필자주와 원주를 구분하기로는 목산의 필자주일 경우에는 ‘愚按安, 愚謂’등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방점 : 41건. 방점이 달린 부분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각각의 필사자가 필사한 부분을 목산이 검토하며 강조의 뜻으로 방점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방점의 위치는 도서 전반에 걸쳐 있으며 향후 특이사항으로 따로 분류하여 방점의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 ▶본문 중에 있는 직접 기입된 소주 : 4건. 이것은 지면 상면에 기입한 자료와는 조금 형식이 달라서 따로 분류하여 보았다. 『동유경설』 4권의 전체적 면모를 통해보면 원문가운데 직접 내용을 기입한 형식은 『대학』이 가

장 많고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 ▶지면상 직접 기입된 필자주 : 『동유경설·대학』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지면에 직접 소주를 기입한 형식에서 본문 중에 쌍행으로 소주를 기입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향후 이 소주가 목산의 소주인지, 아니면 취합자료에 원래 있는 소주 인지를 각각 확인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 ▶본문 중에 쌍행 소주 : 25건
- ▶본문만 있고 내용은 없는 면 : 13건, 특히 ‘篇題’라는 두 글자만 있는 면이 있으며 공백으로 남겨둔 부분도 46쪽이 있다. 이 공백은 각 절마다 취합할 자료를 위해 남겨두었거나 각 절의 시작 쪽을 왼쪽으로 하기 위한 공간으로 건너 뛴 쪽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 ▶언해 현토 : 『동유경설·대학』에서는 1곳에 언해 현토가 보이는데, 『사계변의』의 자료로서 『사계변의』원문에 달려있는 언해 현토를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 ▶오류 수정 종이 덧댐 부분은 3건이 보이는데 이것은 작은 첨지를 첨부하여 필자주 성격의 내용을 기입한 것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데, 이것은 취합된 자료 원문을 첨가하거나 수정을 위한 지면 전체를 변경한 성격의 형식으로 보인다.

② 『동유경설·논어』의 형식상 특징

- ▶첨지 첨부 주 : 32건. 『동유경설·논어』의 첨지 첨부 주는 『대학』의 첨지 첨부 주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當別行’이라는 내용으로 22건이 첨부되었고, 그 외도 오자나 탈자를 확인하기 위한 표식으로 보이는데, 『동유경설·대학』에서 보이는 장문의 필자주 형식은 보이지 않는다.
- ▶방점 표시는 없다.
- ▶본문 중에 직접 기입한 필자주는 없다.
- ▶『동유경설·대학』처럼 지면 윗면을 활용하여 직접 기입된 필자주는 1건 이외는 없고, 거의 모두 첨지를 첨부하여 간단한 격식적 변경을 요하는 필자주를 기입해 첨부하였다.
- ▶본문 중에 쌍행 소주가 기입된 것은 1건 뿐이다.
- ▶본문만 있고 내용은 없는 곳이나 백지로 공백을 비워놓은 부분은 117쪽 이상이다.
- ▶언해 현토는 『동유경설』 총 4권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편으로 총 6쪽에

보인다. 언해 현토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모두 『사계변의』에서 취합한 자료들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논어』에서만 보이는 두드러진 형식상의 특징 중의 하나가 오류부분을 종이로 덧대어 수정한 부분이 상당 수 보이는데, 이것은 『동유경설·대학』에서 오류 수정을 표식하기 위해 지면에 쓰인 오류부분에 네모를 그려서 삭제하거나 변경을 표기했던 방식을 쓴 것에 비해, 『동유경설·논어』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종이를 덧댄 뒤 그 위에 다시 쓰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것은 목산이 필사한 것이 아니라 목산 이외의 다른 필사자가 필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목산이 수정을 한 것이라면 지면위에 직접 삭제를 표시하거나 변경을 표시하는 표기를 기입했을 것이나, 목산이 아니고 목산의 요청에 의해 필사를 담당했던 인물은 자신의 오류를 감히 지면상에 직접적으로 표기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유경설·논어』는 목산의 수정과 검토를 거치기 전 작업과정에서 머무른 상태로 현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반부의 종이 덧댄 수정내용은 전부 원전의 원문 부분으로 원문 부분과 필사한 취합 자료를 맞추기 위해 연쇄적으로 발생된 작업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에 힘을 실는 것으로, 목산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필체로 기입된 내용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³⁾

③ 『동유경설·중용』의 형식상 특징

- ▶첨지 첨부 주 : 총5건
- ▶방점 : 45면 이상
- ▶본문 중에 있는 소주 분류 : 1건
- ▶지면 윗면 직접 기입 : 5건
- ▶본문 중에 쌍행 소주 : 10건
- ▶본문만 있고 내용은 없는 곳 : 31쪽
- ▶언해 현토-124쪽
- ▶오류 수정 종이 덧댄 - 128쪽, 129쪽, 143쪽
- ▶백지-없음

13) 필사자의 필적에 관한 고찰은 목산의 문집인 목산고와 목산의 과장을 대조하여 필사자 고찰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물론 정확한 기록을 찾지 못한다면 필사자 신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필적 대조를 통한 추론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간과할 수 없기에 본고에서는 필적에 관한 심층 연구는 보류하였다.

④ 『동유경설·시』의 형식상 특징

▶첨지 첨부 주 : 없음

▶방점 : 없음

▶본문 중에 있는 소주 : 없음

▶지면 윗면 직접 기입 :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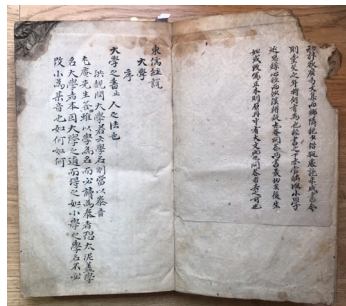
▶본문 중에 쌍행 소주 : 13건

▶본문만 있고 내용은 없거나 공백으로 남겨 둔 부분은 76면에 달한다. 게다가 공백이 아니더라도 취합하여 기입된 자료의 양도 한두 줄에 불과한 부분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동유경설·시』의 자료 취합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 선행 연구된 문헌 자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문헌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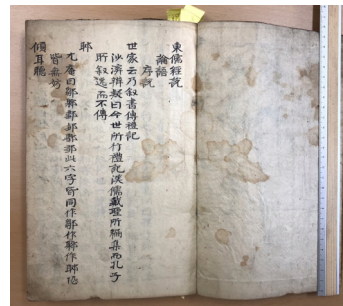
▶언해로 된 현토는 보이지 않는다.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종이를 덧댄 작업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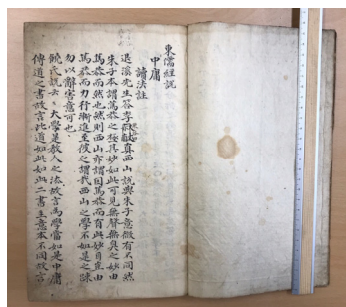
사진자료 6. 『동유경설』 4책의 첫 쪽 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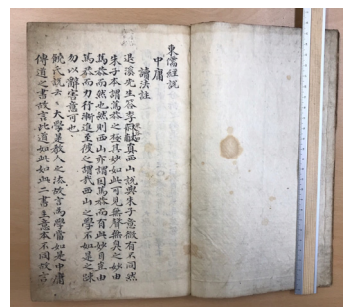
『동유경설·대학』



『동유경설·논어』



『동유경설·중용』



『동유경설·시』

상기의 사진은 『동유경설』의 『대학』·『논어』·『중용』·『시』의 첫 쪽이다. 그 중 『동유경설·대학』에만 자서 성격의 필자주가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다. 편집의 격식은 ‘동유경설-제목-소제목-본문-취합자료’순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에서 행의 위치에 차이를 두거나 열을 변경하여 구분을 두었다. 본 연구 대상인 목산의 『동유경설』이 1차 필사본임을 추론케 하는 특징이 있다. 첫째, 필사자가 1인 이상으로 사용된 필적이 최소 3종이 보인다. 둘째, 필자주로 보이는 소주에서 편집 격식에 대한 중복된 형태가 보인다. 셋째, 필자주의 형태가 직접 도서면에 직접 기록한 것도 있지만, 수집 자료에 대한 필자주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다른 종이에 세필로 작성하여 첨지를 첨부하여 두었다. 다만 첨지를 첨부하는 형식의 필자주는 『대학』·『중용』·『논어』·『시』 수순으로 기록 건수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목산이 사서삼경 연구에 비중을 두었던 도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목산의 자료 수집 상황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37세에 시작된 『동유경설』의 편집이 공부를 진행하는 동안 이루어지다가, 정치 활동이 활발해지고 연행과 같은 중대 업무가 발생하는 관계로 취합과 편집 시간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상호 맞물려 발생하는 인과관계로도 볼 수 있겠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평할 수 있는 것이며, 시간이 많이 할애될수록 내용도 충실해질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다. 다음으로 『동유경설』의 『대학』·『논어』·『중용』·『시』의 수순으로 각각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자.

2) 『동유경설·대학』

목산 『동유경설·대학』은 4권 중 가장 내용이 충실하며 연구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된 쪽수도 189면 378쪽으로 쪽수의 수량이 가장 많다. 따라서 형식적 특성도 많이 보이며 4권의 책이 완성된 후의 내용과 형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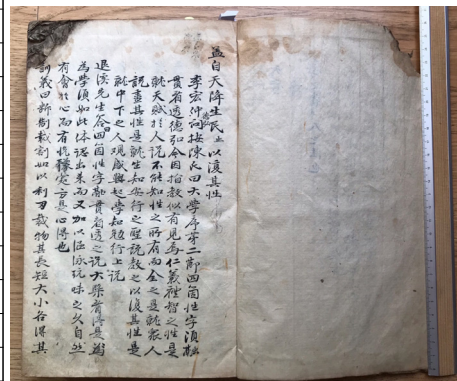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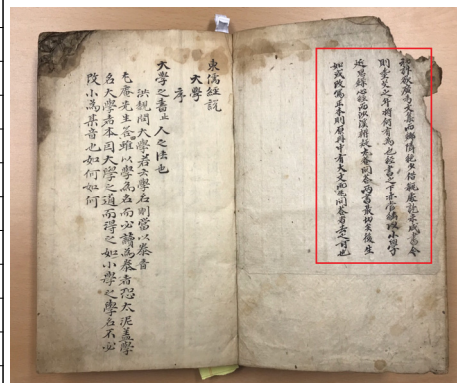
『동유경설·대학』은 아래 <표 1>과 같은 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전 원문이 행의 가장 위에 놓이고, 응답자는 원문보다 한 자 아래에 놓이며, 질문자는 응답자보다 한 자 더 아래에 놓은 격식이다. 서문에 보이는 질문자는 洪觀, 李宏仲(德弘), 沈明仲(世熙), 禹景善(性傳), 趙起伯(振), 李顯益 이외에도, 鄭景由(纘輝), 權有道(尙游), 李君輔(世弼), 安重謙 등의 질문자가 있다. 그리고 질문자와 응답자는 대부분 쌍¹⁴⁾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한 명의 질문

자에 한 명의 응답자로 구성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교류는 편지와 같은 문서(편지)로 주고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거나 또는 기 정리된 서간본 및 문집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것은 바로 自序로 해당되는 문장에서 언급한 ‘尤庵問答’ 즉 『經疑問答』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尤庵問答’의 질문자와 응답자의 구성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1. 『동유경설·대학』 격식 사례와 실제 사진 자료

東儒經說		
	大學	
	序	
大學之書(止) 人之法也		
	洪觀問	
	尤庵先生答(曰)	
蓋自天降生民(止) 以復其性		
	李宏仲(德弘)問	
	退溪先生答(曰)	
	金農巖筭記云	
	沈明仲(世熙)問	
	尤庵先生答(曰)	
	答(曰)	
	禹景善(性傳)問	
	退溪先生答(曰)	
	答李平叔(咸亨)?(曰)	
	趙起伯(振)問	
	退溪先生答(曰)	
	答(曰)	
	又問	
	答(曰)	
	又問	
	答(曰)	
	趙起伯(振)問	
	小註	
	李顯益問	
	金農巖答曰	
	又問	
	金農巖答曰	



- 14) 洪觀問-尤庵先生答(曰)/李宏仲(德弘)問-退溪先生答(曰)/沈明仲(世熙)問-尤庵先生答(曰)/禹景善(性傳)問-退溪先生答(曰)/趙起伯(振)問-退溪先生答(曰)/李顯益問-金農巖答曰/鄭景由(續輝)問-尤庵先生答曰/權有道(尙游)問-(尤庵先生)答曰/李君輔(世弼)問-(尤庵先生)答曰/安重謙問-金三淵答(曰)

표 2. 『동유경설·대학』 자료 현황 정리

순번	응답자	순번	질문자	출현쪽 ¹⁵⁾
1	退溪先生	1	李宏仲(德弘)	5,23,36,40
		2	禹景善(性傳)	8
		3	趙起伯(振)	9,12,19,61,
		4	李平叔(咸亨)	
		5	金仲固(栽)	
		6	李叔獻(栗谷)	小註45,49
		7	許美叔(筇)	45
		8	奇明彦	66
		9	朴士元(光一, 遜齋)	75
		10	李季周(端夏, 畏齋)	76
		11	金起之(壽興, 退憂)	
		12	李仲久	
		13	趙士敬(月川)	
		14	柳應見(雲龍)	
2	尤庵先生	1	洪槻	4
		2	沈明仲(世熙)	7,14,15,20,22,23,25
		3	鄭景由(繼輝)	14,15,16,18,20,24,25,29,
		4	權有道(尙游)	15
		5	李君輔(世弼)	17,33,52,
		6	金仲固(栽)	24,72
		7	李汝九(箕疇)	72
		8	金直卿(幹)	26,31,55
		9	朴受汝	41
		10	李幼能(端相)	
		11	朴和叔(南溪)	68
		12	李同甫	44,68
		13	朴滄溪	88
		14	李伯祥	
		15	李季周	90
		16	閔士昂(泰重)	
		17	金起之(壽興)	172
3	金農巖(金昌協)	1	閔彦暉	6
		2	李顯益	13,54,58,77,94,143,151金農巖 33,36,51,54,58,81,94,114金農岩 ¹⁶⁾
4	金三淵(金昌翁)	1	安重謙	19,20,90~91,96,107,116
5	栗谷先生	1	奇明彦(高峯)(大升)序曰	8, 22
		2	成浩源(牛溪)	120
6	晦齋先生補遺	1	朴丈洞	144
			질문자가 없이 서술됨	39,89,91,97
7	李芝峯(晬光)		질문자가 없이 서술됨	40,49,159,160
8	朴滄溪(泳)		질문자가 없이 서술됨	41~44,90,110,126
9	鄭愚伏(景任)			63

『동유경설·대학』에 인용된 도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동유경설·대학』 인용도서 정리표

순번	도서명	저자	출현쪽
1	金農巖節記	김창협	6
2	沙溪辨疑	김장생	34,37,39,44,52,59,62,68,81,86,89,94,104,108,113,123,124,138,144,145,146,147,148,149,151,152,153,155,156,158,160,161 (총33건 이상 출현)
3	晦齋補遺	이언적	39
4	農巖雜識	김창협	54

목산은 『사계변의』와 『우암문답』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분적으로는 목산 나름의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자료로는 목산 필자주를 기록한 첨지를 의견이 있는 곳마다 첨부해 놓았다. 『동유경설·대학』에 첨지 형식의 주는 20건이 있으며, 종이를 붙이지 않고 지면에 직접 필자주를 기입해 놓은 것은 30건 이상인 것을 보면 『동유경설·대학』은 목산이 『동유경설』을 편찬하는 과정 중에서 비교적 전반부에 속하는 작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목산의 『동유경설·대학』의 편집방식을 살펴보자. 『동유경설·대학』은 퇴계, 사계, 우암, 농암의 “書”에서 많은 인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용방식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전종합DB의 『퇴계집』의 書류에서 관련 인물과의 주고받은 문장을 확인한 결과, 『퇴계집』 「32권 서5 우경선의 문목에 답하다」, 「37권 서6 이평숙의 문목에 답하다」, 「38권 서6 조기백의 대학 문목에 답하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인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고전종합DB의 『퇴계집』 書에 수록된 조기백과의 書 이외의 다수의 문장이 『동유경설·대학』에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 간에 주고받은 서신의 기록을 두 종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정리된 『퇴계집』에서 소재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현재 정리된 문집에 부재하는 문장들은 기타 다른 문집이나 문헌자료 등에서 확인하여 인물 간 서신자료의 범위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동유경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현재 문집에 수록된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범위의 확장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 15) 본고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의 사진 쪽면의 수로 위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 논문에서는 면과 편명의 위치를 병기할 예정이다. 본 표는 출현빈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참고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이하 표에서는 각주 생략)
- 16) 필사자의 書寫 습관에 따라 발생하는 異體字로 보인다.

그리고 『동유경설·대학』 마지막 부분에 첨부된 『사계변의·대학』은 완벽하게 한국고전종합DB의 『경서변의·대학』과 일치한다. 50쪽에 달하는 『경서변의·대학』을 통째로 수록해 두었다. 이러한 편집은 목산이 경학연구에서 『사계변의』를 중시하는 것을 대변한다. 이미 『동유경설·대학』 본문에 『사계변의』에서 인용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책의 말미에 통째로 『경서변의·대학』을 옮겨놓은 것은 그만큼 『사계변의』가 경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임을 알리는 것이었다.

목산이 『사계변의』에 집중한 이유는 학맥적 연계가 가장 강했을 것이지만, 학맥적 연계만으로 목산의 경학적 탐구욕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계의 경학설이 지닌 의미에 대해 먼저 고찰한 후 이를 통해 목산의 편집사유를 짐작할 수 있다. 사계의 학문적 특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김현수(2011)¹⁷⁾의 선행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사계 김장생(1548-1631)의 『大學辨疑』는 『大學章句』의 經文 朱子注 小注와 『大學或問』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고증하거나 비판한 것이었다. 『대학변의』는 사계가 71세(1618)에 완성한 『經書辨疑』의 한 부분으로 사계 경학사상 및 이기심성론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현수는 『대학변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경전해석에 있어 의리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즉 자구의 훈고에 집중하기 보다는 성리학적 의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경문이나 주자주에 대해서는 가례 주석에서의 훈고의 방식을 부분적으로 적용했다. 다음으로 율곡의 대전 소주 산정 및 권평의 영향으로 경문 및 주자주 외에 소주에 대한 접근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율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율곡의 「대학소주권평」에서 지적한 소주와 78.9%의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율곡의 주장을 자주 언급했으며, 이기심성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존신 및 계승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경서변의·대학』은 朱子の 『大學章句』와 『大學或問』을 바탕으로 하여 辨疑를 하였기 때문에, 『대학』의 經學的문제-章句改訂·錯簡說·闕文說·誤字說·作者說·著作時期說·明德說·格物說등-에 있어서는 거의 朱子의 설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주자의 註를 준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경설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辨疑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계 이후 주자학적 경학의 한 전형을

17) 김현수, 2011, 「沙溪 金長生의 『大學』 이해- 『大學辨疑』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45집, 308쪽 참조. 목산이 주로 인용한 인물과 문집에 대한 학문적 의의와 가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인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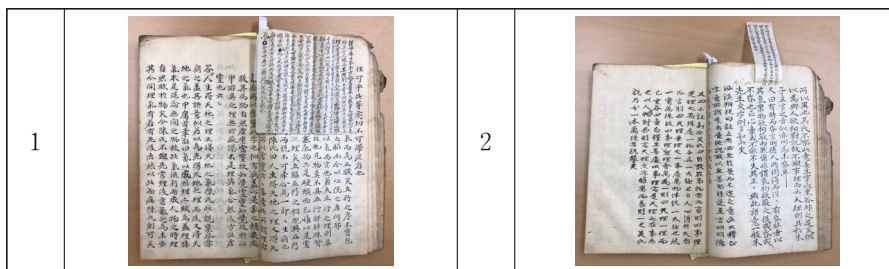
이루는 계기가 된다. 또한 조선 성리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선배 諸儒의 의견과 沙溪자신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어 당대의 성리학의 갈래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사계가 만년에 경전에 대하여 깊이 궁구한 결과물인 『경서변의』 중 그가 유가의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경서변의·대학』은 사계의 성리철학이 풍부하게 녹아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계 경학의 주자학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주자학적 경학의 특성도 추론해 볼 수 있음을 목산은 정확히 간파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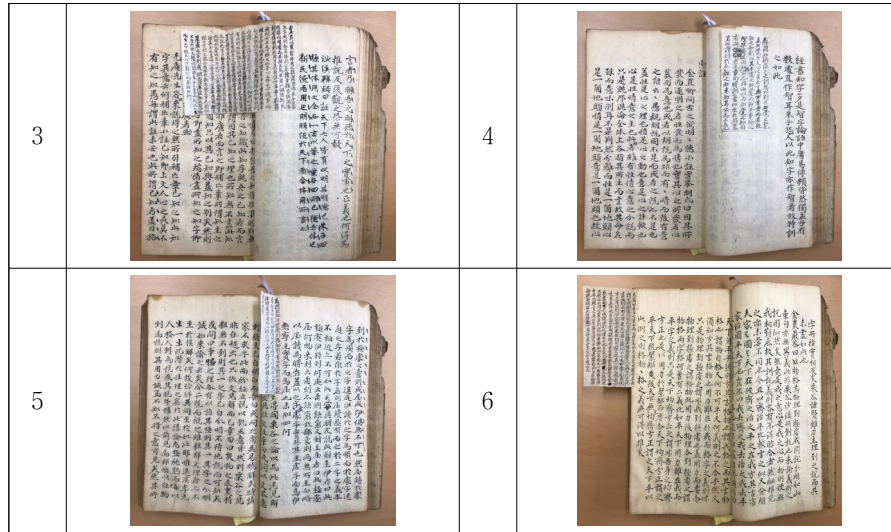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동유경설·대학』에는 籤紙, 頭註, 細註 형식의 주가 첨부되어 있다. 두주는 편집자의 아주 짙막한 첨부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첨지 형식과 직접 기입한 형식으로 나뉜다. 이러한 두주나 세주의 내용은 대략 인물의 이름, 호, 자 등에 관한 짙막한 사항과 이후 편집 시 염두해 두어야 할 위치선정 즉 칸을 내리거나 올리라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동유경설』의 전체적 특징 정리 시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사진은 『동유경설·대학』에 첨부되어 있는 첨지의 사례들 모아보았다.

아래의 사례들 이외에도 대체적으로 목산의 견해로 보이는 첨지 주는 더 있다. 목산의 견해에 관한 상세한 내용파악과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본고에서 초보적으로 살펴본 첨지 주의 내용은 사계, 퇴계, 우암, 농암 등의 견해에 모두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상고해야 할 내용은 스승이었던 도암 이재의 경설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동유경설』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사진자료 7. 『동유경설·대학』 필자주 자료 예시¹⁸⁾



18) 본문에서는 필자주 첨부 쪽면 사진과 그 내용을 정리하였으나, 번역과 표점부호는 기입하지 않았다. 이는 본고가 서지적 특징에 중점을 준 1차적 연구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적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상기 사진의 순서에 맞게 번호대로 원문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동유경설·대학』 필자주 원문 정리표¹⁹⁾

1	謹按朱子答余方叔書歷舉人獸草木枯槁而曰是雖其分之殊而其理則未嘗不同但以其分之殊則其理之在是者不能不異故人爲最靈而脩有五常之性禽獸則昏而不能脩草木枯槁則又并與其知覺者而亡焉但其所以爲是物之理則未嘗不具耳又於答徐子融書有曰若生物之無知覺者則又其形氣偏重之偏故理之在是物者亦隨其形氣而自爲一物之理雖若不復可論仁義禮知之彷彿然亦不可謂無是性也惟於語類中大黃附子之說有若以爲物不能同得然要其歸則與徐書所云若無可論仁義禮知智之彷彿者一意也夫尤翁一生尊信朱子則其於性理之說豈或有違而所論如此蓋亦不過單就凡物之無知覺者而云爾然朱子始雖云若不復可論仁義禮智之彷彿而又必繼之曰亦不可謂無是性也恨尤翁却不如朱子再下一轉語仍以起後人之惑也
2	按有時而昏蒙爲下文所發張本而言蓋雖拘蔽之人本體之明既未嘗息故亦有所發發時則不昏矣朱子分明以時言也農岩所云往往有昏昧者謂或有此等之人也此則以位言也時與位恐不當混看
3	農岩以栗翁体用之說謂恐非朱子之意又云或問極其体用之全讀者類皆誤認体用字以明德爲体新民爲用若以明德新民對分体用則此段文義全說不去云云竊謂或問所云天下雖大而吾心之体無不該事物雖多而吾心之用无不貫窠本乎首節明德章句具衆理而應萬事具衆理体也而卽或問所謂无不該也應萬事用也而卽或問所謂无不貫也是爲心之体用而先立其體然後用有以行格致誠正修所以立其体也齊治平所以行其用也今言心之体用則捨夫新民而豈復有所謂用者哉此栗翁之以明已德新民德相對爲說也朱子極其体用之全云者蓋謂吾之明德既明而又以及乎天下之人使皆明其明德此乃極其全也其下一言而舉之五字所以明經文雖不言明已德而自在於新民德之中也苟如農岩之言則或問此段專說新民德而不及於明已德此恐非朱子之意而拘泥於天下雖大以下數句也未知如何

19) 필사본을 인식하는데 있어 오자나 인식불가의 글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바로 잡도록 할 것이다.

4	愚謂知猶識也之訓恐以別於知覺之知也蓋知覺乃人心之靈合下無不有者而若致知之知則以其本有之知覺而即乎事物之理推廣其所知(識)者也此所以與知覺之知自有所微間者也章句特訓之意似在於此農岩所謂別於仁知之知未知其必爲正義也
5	愚謂此處作伊讀則爲物到之意作厓讀則爲人到之意固主物到則伊厓之間相去遠矣之字固虛而其實則連接處字者也且雖從實而主處字於伊讀亦無不可也未知如何
6	尤翁曰朱子之意以爲凡理之爲物無情意無操作其所謂無不到者非自此至彼而指其極也只是人格之也至此盡處則此物之理更無可格之餘地云也又曰章句或問中只有曰到曰詣者而無自到自詣之說其下語之精密如是矣蓋詳朱子之說分明謂理到而自栗沙尤諸先生皆力主之然所謂理到非理之自此至彼也只是其極處更無餘地之謂也農岩則謂物自格而以家國天下自齊自治自平比較言之其云自齊自治自平恐是語病而至於物格務欲發明非人所格至下自字朱子文字似不應如此

3) 『동유경설·논어』

『동유경설·논어』는 대체적으로 『사계변의』, 우암, 농암, 창계 설이 주를 이루며 김삼연, 이여구, 퇴계, 정제두, 어유봉, 홍도, 신명정 등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빈 공간을 드러내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를 통해 『동유경설·논어』는 자료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대학』과 『중용』 다음으로 『논어』에 비중을 두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목산의 『동유경설·논어』는 ‘학이-위정-팔일-이인-공야장-옹야-술이-태백-자한-향당-선진-안연-자로-헌문-위령공-계씨-양화-미자-자장-요왈’ 총20편중에 ‘학이-위정-팔일-이인-공야장-옹야-술이-태백-자한-향당-선진-안연-자로-헌문-위령공’(편제는 없으나 절목은 있음, 공백 14면쪽) 계씨-양화-미자-자장-요왈’ 17편제명만 명시되어 있다. 중간에 공백으로 남겨둔 부분이 14쪽이 있는데 미처 자료를 수록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편제가 빠졌는지 아니면 논의대상에서 빠졌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먼저, 『동유경설·논어』에서는 인용문헌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전종합DB의 『사계전서』 제12권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동유경설·논어』와 『사계전서·경서변의·논어』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경서변의·논어』의 世家を 인용했다. ‘讀法’부분은 없다. 둘째, 『경서변의·논어』는 ‘학이-위정-팔일-이인-공야장-옹야-태백-자한-향당-안연-자로-헌문-계씨-양화-미자-자장-요왈’까지 17장에 ‘세가’와 ‘독법’을 포함하면 총1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 반해 『동유경설·논어』는 ‘학이-팔일-이인-공야장-옹야-술이-태백-향당-자한-안연-자로-헌문-양화-미자-자장-요왈’까지 16장에 ‘독법’은 없고 ‘세가’만 있는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논어』 분장 구분표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수
논어	학이	위정	팔일	이인	공야장	옹야	술이	태백	자한	향당	선진	안연	자로	현문	위령공	계씨	양화	미자	자장	요왈	20
동유경설 논어	학이	/	팔일	이인	공야장	옹야	술이	태백	자한	향당	/	안연	자로	현문	/	/	양화	미자	자장	요왈	16
경서변의 논어	학이	위정	팔일	이인	공야장	옹야	/	태백	자한	향당	/	안연	자로	현문	/	계씨	양화	미자	자장	요왈	17

표 6. 『동유경설·논어』 자료 현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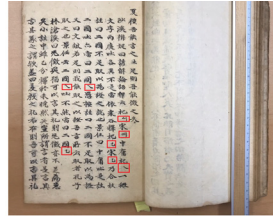
순번	응답자	질문자	출현쪽
1	沙溪辨疑 (총40회)		1,4,7,10,13,14,15,18,19,26,27,28,29,31,32,34,36,43,49,63,72,74,79,86,87,90,93,96,97,99,106,109,133,134,135,136,137,138,140,141
2	尤庵(총20회)	洪觀	2,53,84,88
		李汝九	3,42,59,71,76,97,118
		或人	28,40,91,100,108,117
		鄭齊斗	77
		愼後尹	92
		金壽恒	132
3	金農巖(총59회)		2,3,4,6,16,17,20,21,22,23,24,25,26,33,45,58,64,65,66,67,69,70,73,75,98,101,102,103,104,105,106,107,109,110,111,112,113,114,116,117,119,120,125,126,127,128,129,130,131,139,140,141
		魚有鳳	81,83,85,94,110
		申命鼎	89,95
4	林滄溪(총29회)		5,6,8,9,11,12,35,37,38,39,40,41,42,44,46,47,48,49,50,51,53,54,55,56,57,59,60,61,62
5	金三淵(총3회)		30,37,113
6	退溪(총8회)	趙振	38,52,68,78
		權好文	52
		柳仲淹	74,82
		李德弘	115

『동유경설·논어』에서 가장 특이한 사항은 언해 현토 표기 사례가 보인다. 이 사례들은 모두 『사계변의』를 통해 수록된 자료이다.

사진자료 8. 『동유경설·논어』 언해 현토 수록 자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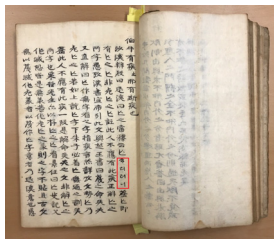
19쪽



26쪽



29쪽



43쪽



72쪽



138쪽

목산 『동유경설·논어』는 ‘김농암’의 설을 취합한 자료의 수량이 월등히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농암 김창협의 『논어』에 대한 연구가 그 당시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목산은 도암 이재의 제자이며, 이재는 농암 김창협의 문인이다. 따라서 학파로 따지건, 정계적 위치인 노론의 맥락으로 보던지 간에 목산이 『동유경설·논어』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을 차지하는 농암의 『논어』에 관한 경설은 1차적 자료 확인을 한 결과만을 보더라도 총 59회로 가장 많이 취합된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농암의 『논어』에 관한 견해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목산이 농암의 견해를 증시한 사유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농암 김창협의 『논어』에 관한 견해는 류준필·이영호(2008)²⁰⁾의 선행연구를 주로 하여 참고하였다.

류준필·이영호(200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농암이 경전을 이해하는 해석태도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바로 선유들이 해석한 주석서를 일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경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석을 취합하고, 주석의 정오를 고증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문의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주자의 경학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계승하였으며, 해석의 방법에 있어

20) 류준필·이영호, 2008, 「農巖 金昌協의 論語學과 그 經學사적 위상」, 『한문학보』 제19집 참조.

서는 고증 지향적이기 보다는 의리 지향적인 면이 강하였다. 『논어』에 대한 해석학적 태도에서는 二程과 朱子の 주석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주석에 있는 그들 문인들의 주석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정밀한 검토를 요하였다. 우암 송시열이 진행한 『논어』 연구는 농암 김창협에게 이어졌고, 농암의 『논어』 연구는 집주 주자 주석의 해석학적 권위를 확립하려는 노론 학계의 경학적 탐구를 상징했다. 특히 『논어정의』, 『논어혹문』, 『논어집주』의 대비 속에서 주자의 해석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6세기~17세기 초에 걸쳐 이황·이덕홍·김장생·권득기 등에 의해 수행된 『논어』의 경학적 연구는 17세기 중엽을 넘어 서며 다양한 분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자 중심의 경전 해석을 재정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송시열의 노력을 김창협이 계승하게 된 것이다. 우암 송시열은 김창협과 권상하로 하여금 자신의 주자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하였는데, 권상하는 『논어정의』와 『논어혹문』의 주석을 편집하는 작업을 주도하였고 김창협은 다양한 주자 문헌을 통해 주자의 『논어』 주석학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아울러 권상하에 의해 조선 주자학자의 『논어』 주석을 편집한 『논어집의』가 마련되었고 김창협에 의해 주자 문집에 들어있는 『논어』 관련 언급들을 수집한 『논어상설』의 초고가 편집되었다. 이러한 계승 과정을 거치면서 노론 학계의 논어학이 심화되어 갔으며 이러한 『논어』 연구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동유경설·논어』에 취합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동유경설·논어』에서 ‘김농암’의 논어설 다음으로 많이 취합된 자료는 『사계변의』이다. 『사계변의』는 이미 『동유경설·대학』의 자서적 필자주를 통해서 경서의 연구에서 가장 적절히 활용될 책으로 권장한 두 권의 책인 『사계변의』와 『우암문답』 중의 하나가 바로 『사계변의』이다.

특히 『동유경설·논어』에는 언해 현토가 달려있는데, 언해 현토가 달려 있는 자료의 원전은 모두 『사계변의』였던 것이다. 『사계변의』의 취합자료 수량은 총40회 이상으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한다.

『경서변의』의 특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영호(2000)²¹⁾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이영호(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16세기 중반 退溪와 栗谷에 의해 이루어진 朱子學의 사변적 추구가 그의 제자들에 의해 理論的深化를 거쳐 이른바 朝鮮性理學(朱子學)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17세기의 朝鮮性理學은 주자학의 사변적 추구만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대의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兩亂을 겪고 난 후, 혼란한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질서를 회

21) 이영호, 2000, 『『經書辨疑·大學』을 통해 본 沙溪 金長生의 經學思想』, 『人文科學』, 제30집 참조.

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학문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 성리학의 현실 고려의 산물로 등장한 것이 禮論(禮學)이었으며, 후일 이것은 學派 혹은 黨派에 따른 관점의 相異에 의하여 政爭과 결부되면서 禮訟으로 이어진다. 17세기의 조선 성리학은 이처럼 朱子學과 禮學을 內外(體用)로 한 당대의 지배적 이념이었는데, 그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沙溪 金長生²²⁾이다. 沙溪는 栗谷 李珥²³⁾의 嫡傳을 이어 尤庵 宋時烈²⁴⁾에게 전해 준 조선성리학의 태두로서, 畿湖學派의 定礎者이다. 그의 학문은 禮學이 그 중심을 이루지만, 이 예학의 이론적 근거인 주자학에 있어서도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그의 讀書記인 『經書辨疑』를 통해 주자학적 경학 방면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해 내었다. 『經書辨疑』는 『小學』·『大學』·『論語』·『孟子』·『中庸』·『書傳』·『周易』·『禮記』등의 순서로 되어 있고, 五經가운데 詩經과 春秋는 제외되어 있다. 목산의 『동유경설』 4책 모두에서 『사계변의』가 고르게 언급되는 것은, 목산이 사계의 경설을 조선의 유학자 즉 ‘東儒’로 인정하며 개인의 경학연구 뿐만 아니라 후학들에게도 사계의 학문적 영향을 전파하고자 『동유경설』의 편찬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임창계의 자료가 총 29회 이상으로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암문답』은 총 20회로 네 번째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퇴계 8회, 김삼연 3회 순으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임창계와 김삼연의 경학사적 의의에 관해서는 『동유경설·시』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4) 『동유경설·중용』

목산의 『동유경설·중용』에 붙여있는 필자주의 수는 5건이 있으며, 첨지를 붙이지 않고 書眉에 직접 頭註를 달아 놓은 것은 26건 이상으로 『동유경설·중용』 역시 목산이 『동유경설』을 편찬하는 과정 중에서 비교적 전반부에 속하는 작업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목산의 『동유경설·중용』에서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사계변의』와 『우암문답』이 취합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계변의』와 『우암문답』에 대해서는 이미 『대학』에서 살펴보았기에 『중용』에서는 중복하여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대신에 중국학자 장민(2003)²⁵⁾의 선행연

22) 이영호, 2000, 앞의 논문, 沙溪 金長生, 1548~1631, 자는 希元, 호는 沙溪, 시호는 文元이다.

23) 이영호, 2000, 앞의 논문, 栗谷 李珥, 1536~1584, 자는 叔獻, 호는 栗谷, 시호는 文成이다.

24) 이영호, 2000, 앞의 논문, 尤庵 宋時烈, 1607~1689, 자는 英甫, 호는 尤庵, 시호는 文正이다.

구를 통해 『경학변의·중용』의 경학사적 의의를 검토하여 보았다. 沙溪의 『經學辯疑』가 세상에 나왔을 때, 비록 『中庸』 주석의 편수는 한계가 있었으나 朝鮮經學이 經典解讀과 諺解에서 경전에 대한 주석과 해석의 단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또한 沙溪는 『經學辯疑·中庸』에서 韓國道學의 이론의 精華를 소개·전달하였으며, 특히 그의 스승 栗谷의 경학사상을 전하여 한편으로 한국의 ‘道統’이 ‘學統’에 의거하여 전승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沙溪는 栗谷의 理氣觀을 계승하였지만 心性論의 인식에서는 栗谷과 약간 다르다. 沙溪가 理學과 禮學을 종합한 經學方法理論에서 보면, 사계는 朱子學을 근거로 삼아 栗谷學을 계승하고, 비판적으로 退溪學을 받아들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도통이 학통에 의거하여 전승되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계가 보여준 주자학을 근거로 삼아 율곡학을 계승하고 비판적으로 퇴계학을 받아들인 특징은 목산이 행했던 호락논쟁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방법론과 일치하는 선행적 연구방법의 모델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동유경설』 전반에 걸쳐 사계의 『경서변의』는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표 7. 『동유경설·중용』 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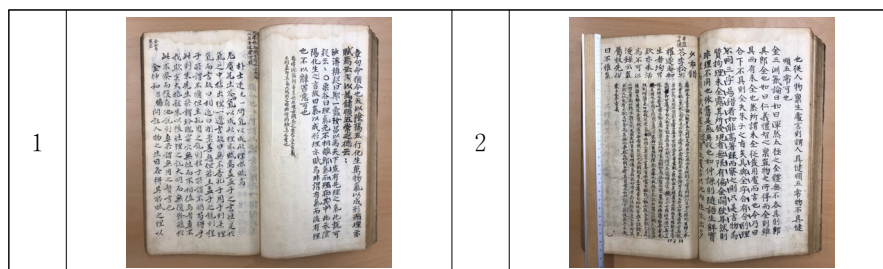
순번	인물명	출현쪽
1	사계변의	3, 5, 6, 44, 45, 57(汝久曰, 景任曰, 註, 小註, 栗谷曰, 小註, 退溪答栗谷曰), 80, 82, 91, 93, 104, 108(鄭子容-鄭崎翁), 111(퇴계, 경임), 소주, 112율곡, 115, 116
2	율곡	10~12, 13~17, 22, 23, 26, 83~86,
3	퇴계	7, 이광중 31, 李叔獻(栗谷) 10, 12, 13, 17, 22, 26, 56, 60, 78, 79, 80, 81, 88, 90, 91, 101, 109, 黃仲舉62, 禹景善105,
4	우계	9, 12, 17, 22, 26
5	임창계	30, 50, 74, 105
6	우암	32, 33, 34, 36, 37, 41, 45(朴士述), 45(金仲和-金昌協), 李同甫(喜朝) 51, 53, 61, 73, 78, 82, 88, 91, 94, 96, 97, 98, 99, 101, 103, 104, 109, 114 尹甬和(案)63, 朴敬初(尙玄)63, 金用九73, 金聖微79, 金是重79, 閔士昂, 李汝九(箕疇)51, 113,
7	김농암	39, 40, 46, 이현익55, 權致道(遂菴)74, /87, 100
8	김삼연	57, 95 /李顯益75, 李松巖77,
9	漫錄	76, 77
10	張谿谷	(계곡)漫筆 49, 92

25) 張敏, 2003, 「沙溪經學思想研究-以『經學辨疑』·『中庸』爲中心」, 『유교사상문화연구』 제19집 참조.

목산의 『동유경설·중용』에서는 필자주를 표시해 놓은 사례가 『동유경설·대학』보다는 수량이 적지만, 특이한 사항은 수집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방점을 달아놓은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방점은 두 가지로 점으로 찍어 놓은 것과 원을 그려 표시한 것으로 나뉜다. 41개 부분 이상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은 내용의 3분의 2 이상의 곳에 방점을 찍었다는 셈이며, 또한 목산의 필적으로 보이는 부분 보다는 목산 이외의 필사자가 기록해 놓은 부분에 방점을 찍은 사례가 더 많다. 이를 통해 협업하여 필사한 자료를 목산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목산 스스로 연구하고 사유한 부분에 대해 표시를 해놓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점 부분에 대한 사례를 따로 모아 목산의 경학관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

『동유경설·중용』에서는 인용문헌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전종합DB의 『사계전서』 제13권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동유경설·중용』과 『경서변의·중용』을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두 종의 ‘讀法’과 ‘序’ 부분은 일치한다. 둘째, 1, 2, 4, 6, 10, 11, 12, 13, 14, 16, 19, 20, 25, 26, 27, 32, 33장이 있는 『경서변의·중용』과 『동유경설·중용』은 3장과 5장 없음이 동일했다. 10장은 『경서변의·중용』에는 있으나 『동유경설·중용』에는 없다. 그리고 12장은 일치한다. 『사계전서』 12장 이후 13장부터 흑문을 포함하여 총11장이 『동유경설·중용』에는 없다. 따라서 『중용』이 『경서변의·중용』을 인용한 부분은 독법, 서, 1장, 2장, 4장, 6장, 11장, 12장으로 일치한다. 셋째, 『경서변의·중용』과 『동유경설·중용』의 1장 배열순서가 다르다. 또한 인용된 내용은 일부분일 뿐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 『동유경설·중용』의 특징 중 하나는 序 부분만 총75쪽에 달한다. 이는 전체량 220쪽의 3/1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사진자료 9. 『동유경설·중용』필자주 자료 예시



상기의 자료 중 첫 번째 첨지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까지

표 8. 『동유경설·중용』 필자주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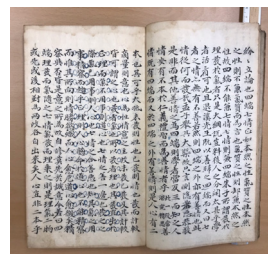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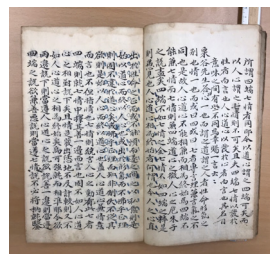
1	愚嘗聞清陶菴李先生理亦賦焉之亦字与又字義不同盖即其氣以成形之時而理同賦焉之意也
2	愚按朱子書中論人獸草木之別曰是雖其分之殊而其理則未嘗不同但以其分之殊則其理之在是者不能不異故人爲寂靈而備有五常之惟禽獸則昏而不能備草木則又并与知覺者而亡焉但其所以爲是物之理則未嘗不具耳竊詳此書旨意則上段所云是雖其分之殊而其理則未嘗不同卽中庸章句人物之生回各得其所賦之理以爲健順五常之德者也下段所云但以其分之殊而理之在是者不能不異卽孟子註以理言之則仁義禮智之稟豈物之所得而全者也一是理也而或言同或言異者天命一原處則渾然全體也故超出氣說而謂之同賦人物異體處則理隆氣中也故從乘氣說而謂之異稟言各有所當不歸於一徧而後學各執已見隨語生鮮使朱子復起者不知當從可說也三淵則專主中庸章句而泛看孟子註語至以理之乘炁以後亦謂之同無或太快否栗翁理通氣局說曰理乘炁流行參差不齊而其本然之妙卽乎不在又曰各爲其性而本然之妙則不害其自若也如此說下然後庶乎不失朱子之本旨矣

의 조사를 통해서 『동유경설』 4책 중에 첨부된 목산의 추가 내용에 목산의 스승인 도암 이재를 언급한 유일한 자료로 보인다. 기타 다른 편수에 도암은 등장한 적이 없었다.²⁶⁾

다소 모순적이기는 하나 목산은 자신의 스승을 동유의 대열에 놓지 않았던 것인지, 아직 도암의 자료를 취합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제지간의 경설적 견해를 종합하고자 한 것인지 의문점이 들었다. 이 부분에 관한 연구도 향후에 진행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동유경설·중용』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인 방점표시부분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동유경설·중용』에 다수로 존재하는 방점부분의 내용을 정리하여 『중용』의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동유의 경설에 호응하며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는지 목산의 사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점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중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비교적 의론이 분분한 담론이 될 수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 담론 중에 목산이 편중되어 있는 견해를 표시해 놓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자료 10. 『동유경설·중용』 방점 표시 자료 예시



26) 향후 보다 상세한 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나, 현재까지는 도암 이재와 관련된 내용의 문장을 찾을 수 없었다.



5) 『동유경설·시』

『동유경설·시』는 4편중에 쪽수도 가장 적고, 등장인물도 모두 다음의 林滄溪曰/俞市南曰/金三淵曰/尤庵曰 4명에 제한되어 있으며, 모두 앞에서 12장까지만 정리되어 있다. 게다가 목산의 필자주는 단 1회만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마지막 총론 부분은 김삼연의 설로 마무리 짓고 있다.

『동유경설·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에서 언급된 인물은 임창계, 유시남, 김삼연, 우암, 퇴계의 자료가 전부이다. 그 중에서도 유시남, 김삼연, 임창계 세 인물의 자료가 주를 이루었고, 우암의 자료는 11회 언급되었으며, 퇴계의 설은 1회만 언급되었다.

『동유경설·시』의 인용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전종합DB의 『市南先生文集卷之十五-雜著-讀詩瑣說 一百十條』²⁷⁾를 비교한 결과, 내용과 분량면에서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목산의 『동유경설·시』에 관한 개략적 개괄을 위해 유시남, 김삼연, 임창계 세 인물에 대해 집중하여 그들의 경학적 사유와 가치를 먼저 확인하였다.

이병찬(2001)²⁸⁾의 선행연구는 정조의 시경강의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시경 연구의 주된 인물들에 대한 시경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김삼연과 임창계의 시경 연구에 관한 기본적 의의와 가치를 동시에 연구한 논문으로, 본고는 김삼연과 임창계에 관한 자료의 대부분을 이병찬(2011)의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正祖朝는 조선 문화의 황금기로 학문이 진흥되어 많은 성과물을 만들었다.

27) 俞榮, 『市南集』, 『市南先生文集卷之十五-雜著-讀詩瑣說 一百十條』,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28) 이병찬, 2001, 『시화가론:滄溪와 三淵의 시경설과 正祖 詩經講義의 상관성』, 『시화학』 4권 참조.

그 중 『詩經』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시경설 중에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성과물은 정조의 『詩經講義』이다. 朱子 『詩集傳』의 정확한 이해에 치중하였던데 이전의 경학 연구에 비하여, 17세기에 와서는 주자설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정조대에 이르러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檢討를 진행하였다. 『詩經講義』는 일반적인 경연강의와 비슷하긴 하나, 직접 대화를 통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질문을 내리고 書面으로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고 그 문항도 797항에 달한다. 정조는 시경강의에서 많은 설들을 인용하였는데, 그 중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자료가 삼연과 창계의 자료임을 확인했다. 三淵 金昌翁(1653~1722)은 주로 日錄에 시경의 시 50편 정도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이 있었고, 滄溪 林泳(1649~1696)은 『讀書筭錄』에 66개 항목으로 나누어 시경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기록이 있었다.

다만, 정조가 ‘我東先儒’라 지칭하였던 삼연에 비해 특별히 창계의 설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창계의 시경설이 독창적인 성격의 자기 설을 많이 내놓았다기보다는 『詩經大全』 안의 소주를 검토하는 선에서 머물렀기 때문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조의 『詩經講義』는 眉叟 許穆으로부터 시작하여 星湖 李瀾에서 茶山 丁若鏞·舫山 尹廷琦로 이어지는 南人계열의 학맥이 있듯이, 정조의 『詩經講義』는 창계와 삼연 같은 서인계열의 학문전통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창계와 삼연은 모두 서인계열의 학자로 당시 권위를 자랑하던 『詩集傳』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주자의 시경설을 더욱 발전시켰다. 이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주자 시경설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배척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미진함을 보충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즉 이들의 설은 당시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비판적인 수용의 단계로 비약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창계는 사후 10여년 만인 1708년에 문집이 출간되어 그의 견해가 널리 알려졌다. 『讀書筭錄』에 기록된 그의 시경설은 66조목으로 주자의 『시집전』 서문에 대하여 6조목 8측, 각 편에 대해서는 60조목 94측으로 나누어 의문과 견해를 피력하였다.

창계 시경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朝鮮刊 詩經大全의 誤脫字 矯正과 諺解 誤謬 指摘 성격을 지닌다. 이는 창계집이 널리 유통된 만큼 당시 학자들의 시경 이해의 정도의 수준까지 가늠하게 해준다. 둘째, 주자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는 서인계열의 학문태도를 주자에 대한 묵수주의로 인식하는 연구 경향에 대해 반박의 증거가 되는 것으로, 서인계열이 주자

를 존신한 것을 사실이었지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이들이 우려했던 것을 오히려 무조건적인 비판이었음을 알게 해 준다. 셋째, 정밀한 賦比興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주자의 설을 진일보 시켰다거나 독창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지만 주자설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창계의 시경설은 당시 학자들이 시경을 연구하며 겪었던 오탈자 문제, 참고로 하였던 언해의 오류문제, 『시집전』에서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은 시경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삼연의 시경설은 창계의 시경설보다 체계적이지는 않다. 즉 어떤 같은 유형의 문제를 일관성 있게 기록한 것은 아니다. 삼연 시경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詩序說에 대한 반대와 淫詩說을 인정하였다. 다만 주자의 음시설을 모두 수용한 것이 아니라 각론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하여 음시라고 인정한 시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둘째, 賦比興을 분석하였는데 주자설에 대한 이견을 주장했다기 보다는 주자의 미진한 부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음시와 부비흥 문제뿐만 아니라 『시집전』에 대한 다양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주로 어구 해석에 관한 것인데 이는 얼핏 보면 주자설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여지가 보이나 오히려 50여 항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외에는 대부분 찬동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본고에서 유시남에 관한 자료는 이해준(2007)²⁹⁾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俞樾(市南, 1607~1664)는 김장생의 문인으로 예학과 사학에 정통하였으며, 송시열·송준길·윤선거·이유태 등과 더불어 충청도 유림의 오현(五賢)으로 일컬어졌다. 그리고 호서산림간의 갈등으로 분열하려는 조짐 속에서 중간의 위치에 있으면서 편당하지 않고 생을 마쳤던 인물로 알려진다. 또한 이이와 김장생의 학통을 계승하였고, 예론의 입장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의 전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율곡학과는 이이를 비조로 하여 김장생-김집-송시열-송준길-유계-윤선거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유계는 이이의 『東湖問答』을 본받아 고금의 치도를 논하고 자신의 정치사상을 피력한 『江居問答』을 저술하였다. 유계는 이 책에서 이이의 학설을 요약하여 “정치의 근본은 修己이고, 정치의 핵심은 任官이며, 정치의 급무는 救民이다”라고 보고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자의 『가례』를 기본으로 하고, 『儀禮』·『周禮』·『戴禮』 등 여러 경전의 내용을 뽑고 주를 붙여 ‘원(源)’이라 하며, 후대의 여러 유학자들의 예설을

29) 이해준, 2007, 「明齋 尹拯家와 市南 俞樾의 교유」, 『유학연구』 제15집 참조.

조사하여 ‘유(流)’라 하여 역사상의 예설들을 밝힌 『家禮源流』를 편찬하였다. 이는 김장생의 예설에 토대를 둔 것이며, 훗날 윤선거와 공편했는지를 두고 논론과 소론 사이에 치열한 당쟁을 불러일으켰다. 말년에는 주자의 『資治通鑑綱目』을 본받아 노론 정권하의 고려사에 대한 역사관을 대변해 주는 강목체(綱目體)의 『麗史提綱』을 편찬하였다. 그 밖의 저서로는 문집인 『市南集』이 있다.

이병찬(2011)의 연구 결과처럼, 창계나 삼연 이후의 후대 시경 연구에서는 형식은 창계의 방식을 따르고, 내용은 삼연의 설을 많이 소개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학습의 결과는 목산의 『동유경설·시』에서도 보여 진다.

그러나 목산의 『동유경설·시』 역시 편집적 완성도는 비교적 낮아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경설을 인용한 인물의 수가 5인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목산의 필자주가 1회³⁰⁾ 밖에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반대로 필자주가 없다는 것은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으나, 김삼연의 인용구가 빠진 부분을 작은 세필로 추가해 놓았거나 원문 다음에 넣어야 할 경설의 내용을 원문 밑으로 바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수 보이는 것을 참고하면, 자료의 수집만 진행해 놓은 채 아직 목산의 견해를 추가하는 과정에 이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또한 목산이 『동유경설』을 집필하는 시기의 시경 연구는 이병찬(2001)의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정조대에 진행된 시경 연구에서도 창계집이나 삼연집 이외의 자료는 아직 출판되지 않은 관계로 참고하고자 수소문하여도 자료집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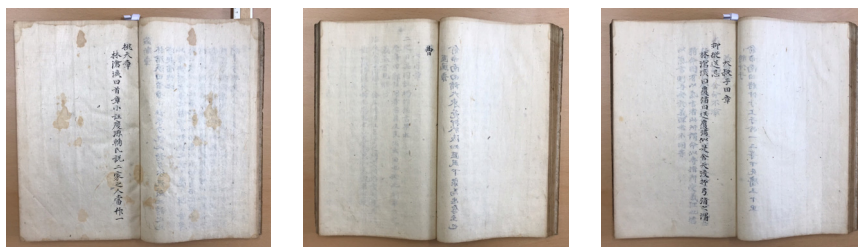
표 9. 『동유경설·시』 자료 현황

순번	인물명	출현쪽
1	임창계	2,3,3,4,4,5,5,7,8,9,10,11,12,13,14,15,19,35,37,39,41,43,44,46,81,81,83,84(28회)
2	유시남	5,6,16,18,21,22,25,29,30,31,32,38,42,45,47,48,49,50,51,52,53,54,55,56,57,58,59,62,62,66,67,68,69,70,71,72,73,74,75,76,76,77,78,78,82,84,86,87,88,88,89,90,90,91,92,92,93,94,95,96,97,98,99,99,100,101,102,103,104,104,105,106,107,108,108,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2,122(89회)
3	김삼연	7,9,11,15,18,21,22,23,23,24,24,25,26,27,28,31,33,33,34,38,38,39,39,40,46,47,47,48,48,49,49,50,50,52,53,54,56,56,57,60,64,65,65,74,75,77,80,81,81,82,82,104,109,110,112,113,113,117,124(총론)-50회(총론포함60회)
4	퇴계답류성룡알	8
5	우암	17,20,27,28,30,30,34,40,60,85,97(11회)

30) 이기경, 고문서 필사본, 『동유경설·시』 57쪽. “김삼연알” 이하부분 필자주 “不惟此章以下當刪” 참조.

그렇다면 목산의 『동유경설·시』는 당시 시경연구를 대표하던 창계와 삼연의 자료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자료 11. 『동유경설·시』 공백부분 사례



3. 목산 『동유경설』의 서지적 특징 및 그 의의

목산의 경학설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심층적 연구가 부족하지만, 목산 『동유경설』에 관한 1차적 형식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동유경설·대학』은 첨지 형식의 필자주를 첨부한 수량이 20건으로 다른 『동유경설』보다 월등히 많은 주관적 견해를 피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동유경설·중용』은 5건, 『논어』는 32건의 첨지 필자주를 첨부해 두었다. 다만, 『시』는 첨지 필자주가 없다.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학』에 첨부된 필자주는 20건이고 『논어』의 첨부된 필자주는 32건으로, 수치상으로는 『논어』가 더 많은 목산의 견해를 담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논어』에 첨부된 필자주의 대부분은 도서 편집에 관한 수정부분을 표기한 것이 22건이며 원문 중에 오자나 탈자를 지적하여 확인을 요하는 것이 10건으로, 『대학』에 첨부된 필자주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가 행과 열을 맞추는 것을 표시해 놓은 내용이었다. 이는 여러 명의 필사자가 작업하면서 필자의 의도와는 다른 격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행과 열을 맞추도록 수정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용』에 첨부된 필자주는 그 수량은 적으나 목산의 경학설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피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지 형식의 필자주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는 필자의 견해적 내

용이 많았기에 좁은 지면에 모두 적을 수 없어서 첨지를 덧대어 주를 달아두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목산 필자주로 추정되는 첨지에 기록한 내용을 별도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오롯이 목산의 의견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통해 동유의 경설에 관한 목산만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동유경설』 4책에는 첨지 형식의 필자주를 첨부한 내용이외에도 방점을 표시하여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두었거나, 지면에 직접적으로 주를 달아놓은 부분이 많았다. 첨지이외에 지면의 書眉에 직접적으로 필자주를 달아 놓은 頭註의 횟수를 1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학』은 59회 이상, 『중용』은 5회, 『논어』는 1회, 『시』는 1회 정도로 보인다. 특히 방점으로 내용을 강조하는 부분이 두드러진 것은 『동유경설·대학』과 『동유경설·중용』이었다. 『동유경설·논어』와 『동유경설·시』는 방점을 활용한 표식은 없었다. 『동유경설·대학』과 『동유경설·중용』에서 지면상에 직접 주를 기입해 넣은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물명과 인물의 호에 대한 정정 사항이나 확인사항 등에 대해 기록한 것이 많았다. 취합자료상에 호가 기록되어 있으면 명을 보충하였고, 명이 기록되어 있으면 호를 보강하였으며,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요하는 기록을 달아놓았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 목산을 기준으로 하여 목산보다 장년배이거나 선배이면 호를 칭하고자 하였고, 목산보다 연배가 낮거나 후배격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취합자료를 원전대로 인용하되, 호를 보충하여 주를 달아놓았다. 이는 선배에 대한 존숭과 학맥적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경학은 중국 경학에 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가 많이 열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경학자들은 경학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명확히 이해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과거의 경학 연구가 앞선 경학설의 기록을 반복적으로 계속 인용하며 학파간 지역간의 간극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적 담론의 모든 주제가 그러하듯이 개인의 관심이 사회의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담론이 개인의 관심사를 이끌어 내는 연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조선의 경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경학에 대한 담론을 취합하여 종합성을 꾀하고 종합성을 꾀하고자 했던 경학가의 문헌을 탐구한다면 학자적 사유와 사유에 대한 결과물이 상호 어떤 관계성을 지니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산 『동유경설』의 고찰을 통해, 목산은 전형적인 기호학파의 맥락을 잇고

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권의 『동유경설』에서 영남학과 학자들의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으로는 서인-노론-낙론의 입장에서 학문적 성격도 결정지어졌다. 이재를 스승으로 섬겼고, 스승인 이재는 삼연 김창협(1651~1715)의 문인이었으며, 삼연 김창협은 농암과 형제지간이고, 삼연은 우암의 제자이다. 우암은 사계의 제자이고 사계는 율곡의 ‘소주산정’ 작업을 계승하였다. 우암학맥까지는 주자설에 異同處가 있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면, 농암학맥에 이르러 주자설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주자설에 이동처가 왜 발생했는지 제대로 된 인식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학사에서 주자설에 대한 정립화와 공고화 양상은 17세기 우암을 필두로 한 기호학과와 공동된 주제였다. 삼연과 창계는 모두 서인계열의 학자로 주자를 존신하지만 주자의 경설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여 비판적 수용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등 공신들이었다. 『사계변의』와 『우암문답』의 경설에 대한 신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산의 自序적 성격의 문장에서 목산이 『동유경설』을 편집하면서 주로 참고한 두 종의 서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목적이 있는 듯하다. 이는 사적으로 토론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동유의 문집 취합 작업을 통해 경학의 대상들을 광범위하게 고찰하고자 하는 저술의도를 드러내었다. 이것은 마치 학문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당파나 학맥을 초월하려는 포괄적 수용태도를 견지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목산의 『동유경설』이 후학들에게 끼칠 암묵적 영향성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학맥을 공고히 유지하며 후학들이 경서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고자 한다면 큰 글씨의 원문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문답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점에서 문답의 내용은 지극히 순수히 개인 차원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후학들에게 경서 연구의 과정과 방법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자료 수집본으로서의 활용가능성도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산의 『동유경설』에서는 『대학』과 『중용』이 수집된 자료와 목산의 견해가 가장 충만했으며, 『시』와 『논어』는 다수의 절이 원문과 1인 정도의 의론이 정리되어 있어 미완의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었다. 비록 미간행 필사본으로 남겨졌으나 37세부터 시작된 작업의 과정을 현존하는 4권의 책에서 살펴보고 목산의 『동유경설』의 집필 과정이 그 시기의 경설 연구의 어떠한 단면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목산의 『동유경설』 4책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은 『대학』으로 많은 수의 등장인물과 의론 내용들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목산의 생각을 첨부한 첨지가 많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따

로 모으면 목산의 경학설에 관한 연구의 새로운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동유경설』이라는 저술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목산은 ‘東儒’ 즉, 조선 유학자들의 경전 해석을 모아 책으로 엮고자했다. 따라서 목산의 집필 과정 속에서 목산이 선별한 동유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목산의 경학적 사유의 근본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목산의 사유에서 동유로 선별된 인물들은 退溪, 栗谷, 沙溪, 尤庵, 三淵, 滄溪, 農巖, 市南 등으로, 모두 조선경학사에 있어서 정치와 학맥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목산이 『동유경설』을 집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한 도서는 『사계변의』와 『우암문답』이었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조선 중후기 경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계와 우암이었으며, 특히 목산은 사계의 경학을 동유의 대표 경학설로 인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산이 사계와 우암의 경설에 경도해있음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동유경설·대학』이었다. 사계의 『대학변의』는 주자의 설을 준수하면서 朱子註의 異同에 대해 최초로 경학적 관심을 가지도록 했으며, 이처럼 사계에 의해 제시된 주자주의 이동에 관한 관심의 시작은 그의 제자인 우암에게 계승되어 주자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율곡학을 계승시키도록 하였다. 다만 사계와 우암으로 이어지는 경설은 경학을 성리학의 범위에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낳기도 하였다. 목산은 이러한 사계와 우암의 경학적 사유를 도암을 통해 전수받았다. 그리하여 목산은 우암과 남당 한원진이 사계에게 전수받은 경설을 통합하여 『辨韓南塘同異考中語』라는 문장을 써서 당대의 학계에서 일대 논쟁 점이었던 인물성동이론을 구명함으로서 이를 둘러싼 호락논쟁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던 사상적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6세기 중반 퇴계와 율곡에 의해 이루어진 주자학의 사변적 추구는, 사계가 퇴계의 이기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율곡의 이기설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리고 사계의 제자인 우암과 남당 간의 조선 성리학의 문제 쟁점들에 대해서, 목산은 우암의 견해를 계승하고 비판적으로 남당의 견해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셈이었다.

『동유경설·논어』에서도 사계와 우암의 경설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계와 우암 이외에 창계와 농암의 경설은 더욱 지배적이었다. 우암이 진행한 『논어』 연구는 농암에게 이어졌고, 선유들이 해석한 주석서를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주석을 취합하고 주석의 정오를 고증하는 것을 중시했던 농암의 『논어』 연구적 태도는, 주자 해석의 해석학적 권위를 확립하려는 노론 학계의 경학적 탐구를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존하는 『동유경설』 4책에서 『동유경설·시』를 제외한 나머지 3책에 『사계

변의』와 『우암문답』의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고르게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목산이 주자학과 예학이 지배적 이념으로 구성된 인물로, 사변적 추구를 중시했던 조선 성리학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예학을 추구했던 조선 성리학자의 또 하나의 대표적 형상이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형상의 근본은 율곡 이이의 적통을 이어 우암 송시열에게 전해 준 조선 성리학의 태두 사계의 형상에서 근원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동유경설·시』에서 두드러진 자료인 유시남의 『독시쇄설』을 전부 기록해 둔 것을 보면, 목산이 율곡과 사계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유시남은 율곡과 사계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예론적 측면에서는 우암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의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사계의 『讀書記』에 빠져있는 『시경』의 부족을 유시남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기록함으로써 목산의 『동유경설』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사계와 우암의 학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맺음말

당윤희(2016)³¹⁾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의 문인들이 주희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서대전의 오류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18세기에는 사림을 중심으로 주희의 사서 주석에 대해 異同을 가리고 시비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의 학풍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주희의 여러 주석들이 편찬의 선후와 편찬 동기 등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서로 상충되었기 때문이며, 조선의 문인들이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상고하고 그 의미를 분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문인들이 개인적으로 경서를 해설하거나 주석한 필사본들은 특기할 만한 刊記나 印記가 없고 관부에 소장되었던 장서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 사대부들의 『논어』 주석서 단행본은 대부분 서로 필사하여 전하고, 札記 등의 단편으로 전해지는 것은 문집에 수록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목산의 『동유경설』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간기도 없으며 장서인도 존재하지 않는 미간행 필사본으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31) 당윤희, 2016, 『奎章閣 소장 『論語』와 四書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74집, 31~32쪽.

그동안 목산에 관한 선행연구는 목산이 낙론의 영수였던 도암의 학설을 계승하며 낙론적 맥락에서 목산을 조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호론과 낙론의 고정된 틀에서 목산을 조망하였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고정된 틀에 맞추어지지 않는 목산의 색채가 드러나며 기존연구보다 자료적 범위가 확대되어 전개되어야하는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辨韓南塘同異攷中語』나 『心性問答』만을 가지고 목산의 경학관을 이해하기 부족했다. 게다가 목산의 연행록인 『음빙행정력』은 목산의 외부인식적 사유의 정황을 고스란히 그려내었다. 대명의리로 관찰된 저변적 사유에 복학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며 신념적인 주자학에 대한 인식의 전개도 맹목적인 수용으로만 머물러 있기엔 외부 사물과 정황이 목산으로 하여금 正反의 모순의 끝자락에 존재하게 하여 숨을 도출하도록 재촉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목산의 『동유경설』을 통해 비판적 종합화를 기획했던 목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경학 연구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본고는 『동유경설』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의 1차적 고찰을 통해 목산이 편집하고자 했던 『동유경설』의 주된 편집 의도와 사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목산의 새로운 형상을 확립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동시에 목산의 『동유경설』의 편집에 조선 유학자들의 경전에 대한 견해가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며, 목산은 자신만의 견해를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자 했는지 고찰해 보았다.

목산의 『동유경설』에 관한 연구는 목산이 전주 사족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주 유학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기의 유학자들 특히 조선 성리학자들의 연구 성향과 가치관을 총망라하고자 했던 목산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목산이 소속되어 있던 학파적 성향과 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더불어 목산의 성리학을 재검토하는 한편 전주유학사 및 한국유학사에서 목산이 지닌 학문적 위상을 조망하는데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목산의 경학설에 관한 심층적 내용 연구는 향후에 추가로 진행하고자 함을 밝힌다.

참고문헌

- 김명엽, 2012,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목산이기경의 삶』,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 김현수, 2011, 「沙溪 金長生의 『大學』이해-『大學辨疑』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5집, 307-335쪽.
- 당윤희, 2016, 「奎章閣 소장 『論語』와 四書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74집, 21-65쪽.
- 류준필, 이영호, 2008, 「農巖 金昌協의 論語學과 그 경학사적 위상」, 『한문학보』, 19집, 1177-1200쪽.
- 이기경, 『동유경설』, 宗孫 李柱成氏家 保藏本.
- _____, 『木山藁』, 宗孫 李柱成氏家 保藏本.
- _____, 1990, 『木山藁』영인본, 전주: 세원사.
- 이병찬, 2001, 「시화가론: 滄溪와 三淵의 시경설과 正祖 詩經講義의 상관성」, 『시화학』 4권, 365-385쪽.
- 이영춘, 2014, 「목산 이기경의 연행록 『음빙행정력』」, 『한중인문학연구』 44집.
- 이영호, 2000, 「『經書辨疑·大學』을 통해 본 沙溪 金長生의 經學思想」, 『人文科學』, 30집, 7-24쪽.
- 이해준, 2007, 「明齋 尹拯家와 市南 俞槩의 교유」, 『유학연구』 15집, 27-47쪽.
- 張敏, 2003, 「沙溪經學思想研究-以『經學辨疑』·『中庸』爲中心」, 『유교사상문화연구』 19집.
-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2012, 『전주학연구』 제6집.

[기타 웹사이트류]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KRPIA, <http://www.krpia.co.kr/>

<Abstract>

A Study on the Book of the 『Dongyu Gyeongseol』 by Yi Ki-kyung, Moksan

Lee, Kyoungh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ormal features and main contents of the 『Dongyu Gyeongseol(東儒經說)』 by reviewing the bibliography of Moksan Yi Gi-gyeong, who was a member of the Noron Nakron fami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soon as we look at the source of the individual's Confucianism reasons in Moksan, also exami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onfucianism scriptures of Joseon scholars. The reference to Moksan's 『Dongyu Gyeongseol』 is contained in the 『Moksan Yearbook(木山年譜)』. The 『Moksan Yearbook』 records that “『Dongyu Gyeongseol』 was compiled in 1749 (the year of King Yeongjo's reign) at the age of 37 in Moksan, but was not completed.” Attached to the unfinished 『Dongyu Gyeongseol』, there is a affix paper. Here, the materials that Moksan mainly referred to during the compilation of 『Dongyu Gyeongseol』 were 『Sagye's Question & Distinction(沙溪辨疑)』 and 『Wooam's Question and Answer(尤菴問答)』 and among these two types of materials, “The contents of questions and answers related to the scriptures were collected and arranged in a collection of texts containing private discussions by the Confucian scholars of Joseon Dynasty.”

Moksan tried to identify the issu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by compiling the opinions of other scholars who had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Confucianism scriptures, and to establish his own reasons for the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situation.

On the surface, it seemed to maintain a comprehensive attitude of acceptance to transcend partisan or academic connections to solve academic curiosity, but behind it, it recognized the implicit influence of 『Dongyu Gyeongseol』 on the younger generation, maintained the academic context through 『Dongyu Gyeongseol』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academic studies of the younger

^{*} Lecture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scholars.

In this regard, the compilation of 『Dongyu Gyeongseol』 was not only used as a material for personal research, but also intended to be utilized as a collection of materials that directly showed the process and methods of the Confucianism scriptures research to junior scholars.

After reviewing the 『Dongyu Gyeongseol』 of Moksan, it can be seen that the representative Confucian scholars of Joseon, which were important to Moksan, were limited to Toegye(退溪 李滉)·Yulgok(栗谷 李珣)·Sagye(沙溪 金長生)·Wooam(尤庵 宋時烈)·Samyeon(三淵 金昌翁)·Changgye(滄溪 林泳)·Nongam(農巖 金昌協)·Sinam(市南 俞棨).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completion was not very high in the collection of the data on 『Non-eo(論語)』 and 『Si(詩)』, compared to the large amount of data that focused on the research of 『Dae-Hak(大學)』 and 『Jung-Yong(中庸)』. This may be taken as a natural result because 『Dongyu Gyeongseol』 remained unfinished, bu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Moksan is the result of putting the value of 『Dae-Hak(大學)』 and 『Jung-Yong(中庸)』 more first.

Key Words : Moksan Yi Gi-gyeong, 『Dongyu Gyeongseol』, 『Sagye's Question & Distinction』 and 『Wooam's Question and Answer』, 『Dae-Hak』, 『Non-eo』, 『Jung-Yong』, 『Si』

